

다산포럼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동진일까, 호미곶일까. 아니면 일출봉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해돋이의 명소들이다. 요즘 음연 이곳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그것은 새봄계 각오를 다져야할 만큼 현실이 더 절박해졌거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그만큼 간절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작년이 이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새해의 소망을 꼭 이루어 달라고 호소하고 싶은 마음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 많은 분들께 새해 소망을 묻는다면,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양극화나 적대적 정치의 해소에 관한 답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소망 중 하나가 평화에 대한 희망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는 오랫동안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삶들이 적나라한 생존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될수록 그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새해의 소망

최근 몇 년간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종전선언 문제이다. 정전 7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그만큼 정전과 종전 그리고 평화가 직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환기시켜 준다. 최근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종전선언 문안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신냉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갈등이나 별로 변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를 볼 때마다 상황이 우려스럽다. 또한 합의의 실질적인 결실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우리가 겪은 전쟁은 남북 간 전쟁을 의미하는 6·25전쟁과, 미국이나 중국의 참전을 의미하는 한국전쟁 이외에, '마을로 간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의미 있는 종전선언이라면 앞의 두 가지 차원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 번째 차원의 문제도 국가 중심적으로 풀어 가면서 동시에 국민개인의 경험과 안전의 문제로 풀어 가도록 유도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에 관한 답을 이미 16년 전에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으로 답했는지도 모른다.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피해에 착목(着目)하여 설립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투쟁으로 인하여

여 주민들이 겪었던 악몽과 트라우마, 거기에서 비롯된 오랜 침묵의 문제를 재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전에 서둘러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아쉬워진다. 다행스럽게도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전쟁의 피해와 관련된 진실 규명 신청이 9000건을 넘었는데, 이는 제1기 때보다 더 많은 진실 규명 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진실 규명 요구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5년 전의 진실 규명 요구는 주로 명예회복을 겨냥하는 것이었는데, 약 10년 전부터 이것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즉 배·보상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런 변화된 프레임에 직면하여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유족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요청은 첫째, 배·보상 소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군경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적대 세력이나 미군 폭격에 의한 피해도 구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요청들은 이제 우리가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임인년 새해가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부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청춘 특특

당신은 'O린이' 입니까?



임다빈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2년

이름 '항상 배워야만 하는 사람' 가르쳐야만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말이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 개설된 아동복지론 수업에서 아동 권리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우리 조는 'O린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78명이 참가했고, 참가자의 연령대는 10대와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 권리 침해 단어의 실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기에 O린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무응답 14명을 제외한 64명 가운데 '매우 자주' '자주' '보통'을 선택한 A집단은 총 17명(26.6%), '매우 가끔' '가끔'을 선택한 B집단은 47명(73.4%)이었다. 이후 'O린이'를 아동 권리 침해 단어로 정의한 상태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인식 상태를 묻는 '이와 같은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선 질문에서 나눠진 A집단과 B집단의 답변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O린이'라는 단어를 매우 가끔 혹은 가끔 사용한다는 B집단의 경우 이 단어가 가진 권리 침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매우 자주' '자주' '보통'을 선택한 A집단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O린이가 기본이 나쁘다면 어린이 단어가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예상 외의 설문조사 결과에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 A집단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본인이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부정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많은 사람이 웃자고 사용하니 잘못된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져서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 혹은 동기로 사용하던 익숙하다는 이유로 '차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자신이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연연중에 차별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O린이'를 재미로 사용한다. 사용하는 본인은 실제로 어린이가 아니고, 그 단어로 인해 어린이가 가지게 되는 이미지는 자신과 상관이 없으므로 단어가 오염되는 현상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너무 익숙해져 인식 변화를 위해 기력을 소모하는 일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고비를 넘겨야 진정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사회의 모든 것은 인간이 축적한 의미를 통해 만들어진다. 만약 지금 'O린이' 단어 표현을 바로잡지 않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넘겨버린다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어린이는 그저 '부족한 사람'으로 각인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O린이'는 아동 혐오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어린이가 가진 '불완전함' '미숙함'이라는 극히 단편적인 해석을 재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때때로 '이게 진정 옳은 일인가?' 하고 돌아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社說

속도전도 모자라 '대리 시공'까지 했다니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39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계약한 A업체가 아니라 A업체와 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한 B펌프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을 도외시한 총체적 부실시공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후 노동계에서 제기한 '물량 떼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물량 떼기'는 시공사와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업체 간 직접 계약이 아니라 시공사가 관련 업무를 팔조공사 업체에 넘기면 여기에서 펌프카 업체를 통해 레미콘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종의 재하도급 형태인 이런 계약이 유행하는 것은 단가를 낮춰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함

이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진행될 경우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점도 확인됐다. 건설노조가 확보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에는 지상 35층부터 39층까지 다섯 개 층이 각각 6-10일 만에 타설된 사실이 담겨 있다. 이는 "12-18일간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팔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타일 공사를 위해 하중을 건디는 동바리를 제거한 것도 무리한 속도전의 정황으로 짚는다. 경찰은 대리 시공 과정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 이번에는 반드시 현대 산업개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건희 씨 녹취록 보도' 대선 새 변수 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뉴스채널 '서울의 소리' 이 모 기자와 통화한 내용 일부를 문화방송이 그제 보도했다. 이날 방송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지금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것과 사생활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방송해도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통화에 의하면 김 씨는 이 씨에게 "우리 캠프로 데려왔을 좋겠다.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 챙겨줄 거 같아?"라면서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2019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라고 주장하면서 "그때(2016년 국정농단)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야"라고 말했다. 미투와 관련해서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라면서 "미투 터지는 거는 다 돈 안 챙겨 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돈은 없지 바람은 피우야 되겠다. 나는 다 이해하거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구만, 솔직히. 나랑 우리 아버지(윤석열)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면서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차라리 책 읽고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장 모 기자의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개는 아마 감옥 갈 거야. 냐뿔.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아. 왜냐면 나는 풀리 한 적이 없거든"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김 씨의 이른바 일곱 시간 통화 녹음 보도는 그러나 정작 대선판을 뒤흔들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이다. 굳이 찾자면 윤 후보 캠프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있는 김 씨가 무슨 자격으로 선거 캠프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와 김 씨의 미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될 것 같다. 실제로 관련 기사에는 "하루 종일 기다린 김 씨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김 건희 씨의 녹취록 보도는 윤 후보의 대선 판을 뒤흔들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이다. 굳이 찾자면 윤 후보 캠프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있는 김 씨가 무슨 자격으로 선거 캠프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와 김 씨의 미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될 것 같다. 실제로 관련 기사에는 "하루 종일 기다린 김 씨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김 건희 씨의 녹취록 보도는 윤 후보의 대선 판을 뒤흔들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이다. 굳이 찾자면 윤 후보 캠프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있는 김 씨가 무슨 자격으로 선거 캠프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와 김 씨의 미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될 것 같다.

無等鼓

20대 대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민심은 여전히 침사리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이는 지지율 선두권 후보들에 얽힌 각종 논란과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이탈된 표심이 상당 부분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로 쏠리기도 했다. 대선 정국의 유행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미 말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그만큼 유권자의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도 있다. 지난 1976년부터 정례화 된 미국의 대선 TV 토론에서도 말 잘하는 후보가 성공한 사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B급 영화배우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레이건은 넉넉한 매너와 환한 웃음으로, 정치 쫓내기였던 케네디는 생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로 TV 토론을 주도해 대선 승리의 주도권을 쥐었다. 그만큼 TV 토론은 화려한 언변과 정제 취미를 보 축이 설 연휴 이전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설 연휴 직전에 이뤄지는 이번 TV 토론은 상호 공방 속에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혼전 양상의 대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TV 토론의 성적표가 명절 밤상머리에 오르면서 민심의 흐름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탈변의 이재명 후보가 정치 경력이 짧은 윤석열 후보에 비해 유리할

대선 TV 토론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기 고

청년 일자리 해외로 눈 돌려야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UN)에서도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 대학 진학률이 79.2%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그러나 보니 청년(15~29세) 실업률은 9%대로 약 110만 명에 이른다. 국가가 '백년지대계'라며 교육을 시켜놓고 아무 일자리를 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 줘야 한다. 이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외에서 찾는 '(가칭)세계 한류개척단' 사업을 제안한다.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고 이들이 한몫을 하는 '1인의 세계인'으로 성장시켜 주자는 것이다. 먼저 해외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기관들과 연결하면 더 안정된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해외 파견 기관과 기구들을 살펴보면 재외공관은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를 합해 166곳, 한국문화원은 27개국 32곳, 코트라는 84개국 127곳에 달한다. 기업의 지사는 1만 400개이며, 코이카는 44개국 751명, 세계 태권도 연맹(2020년)은 회원국이 210개국으로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우리 동포와 기관이 있다. 이를 포함하여 세계 각 도시에 1만 명의 우리 청년들을 파견하자는 것이다. "K한글·K팝·K푸드·K문화·K

상품 등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10인 1조'로 짜서 세계 각국의 1천여 도시에 파견하자는 제안이다. 5년을 단위로 파견해서 주어진 역할 수행과 자기개발을 통해 5년 후면 1인의 세계인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자는 것이다. 1인당 연간 소요 비용은 약 1억 원(연봉 5천만 원, 현지 부대비용 5천만 원)으로, 1만 명이면 1조 원에 해당한다.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1960년 미국의 케네디는 소련이 먼저 달나라에 가자 이를 따라잡기 위해 수조 달러의 '문샷'(MoonShot)을 편성한 이래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매년 1천억 엔 이상의 문샷 예산을 편성해 미래 과제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사람에게 투자해 보면 어떻까 싶다. 1조 원의 예산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 아니다. 현지에서의 활동은 반드시 확대 재생산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K한글·K팝·K푸드·K문화·K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재생산 구조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당장 첫 해부터 1조 원 이상의 경제·문화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통 큰 결단이다. '방안통수'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